

테마칼럼

국립대학

과학

문화

교육과 미래

누가 교육을 알았다 하는가



이지현

점수와 등수를 매기는 일에 몰몰하는 교육은 인간의 존엄성을 망치기 쉽다. 몇 점, 몇 등, 어느 대학에 갈 수 있을 등이 중요해지는 반면 사람인, 사람됨 그 자체는 경시되기 십상이다.

듣는 자는 바로 너 자신이다.” 자유로운 인간이란 자주적으로 사고하고 결정하는 존재다.

저 있다. 이 세상에서 나는 어느 누구하고도 결코 같지 않다. 나는 더 나은 사람이라고 할 수는

철저한 검증 통해 ‘유권자 혁명’ 이루자

제 18대 총선 선거전이 치열하다. 광주·전남 20개 선거구에는 모두 93명의 후보자가 출마, 경쟁을 하고 있다.

력, 자질 등을 꼼꼼히 따져보면 최소한 부적격자는 가려낼 수 있다.

광주·전남의 선거관은 전국 상황과는 다르다. 전국적으로는 ‘안정론’과 ‘견제론’이 팽팽히 맞서

광주·전남지역 후보자 상당수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총선은 역대 선거와 비교된다. 후보자의 자질이나 능력, 정책 등을 비교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고

비방과 흑색선전,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불법 선거의 우려도 크다.

판단 기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후보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과 경

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먹을거리 갖고 장난치는 업체 퇴출시켜야

국내 유명업체의 ‘생쥐머리 새우깡’ ‘칼날 참치캔’ 등으로 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먹을거리의 안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국립농산물관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지난 26일 중국산 수입 농산물로 제조한 된장과 고추장을

일본과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식품에서 이물질이 검출되거나 소비자를 속이는 회사는 감하기도 한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로 칼럼



이동규

척추질환은 많은 환자 수만큼이나 잘못된 의학적 상식이 널리 퍼져있는 질환이다.

이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다. 일례로 수영은 일반인들 사이에서 ‘허리에 좋다’라는 인식이 있지만 수영도 허리에 무리를 줄만큼 심하게 하는 경우에는

또 처음부터 빠른 속도로 2~3시간을 걷는다면, 고속으로 자전거를 탄다면, 가파른 산을 등산하는 것은 피해야

척추질환에 대한 잘못된 상식

추운통 상식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척추질환 중 가장 많은 것은 추간관 탈출증, 일명 디스크라 불리는 질환이다.

한다. 스트레칭이 허리 디스크에 좋다고 해서 지나친 반동으로 허리를 숙이거나 제제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절대 피해야 한다.

심한 환자들은 허리 혹은 목에서 부드득 소리가 나오도록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은 길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동작도 절대 피해야 한다.

〈광주보훈병원 신경외과〉

기고



전주연

조선시대 대표적 인문지리서인 ‘택리지’ 중 ‘북거총론’에는 사람이 살만한 곳의 조건으로 지리(地理), 생리(生利), 인심(人心), 산수(山水)를 꼽고 있다.

에 용역에 의뢰해 최근 발표한 ‘지역생활여건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자료는 이를 잘 뒷받침 해주어 있다.

가장 살기 좋은 행복도시

과정을 거치면서 도시는 심각한 주택·교통·환경난을 겪고 있으며 농촌은 저개발과 인구급감, 고령화 등으로 존립 기반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할 수 있다. 서구는 환경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 (양호)’ 이상으로 평가됐으며 특히 교육과 복지, 문화, 주거는 최고 등급인 ‘++ (매우 양호)’를 받았다.

광주시 서구 역시 민선 4기 들어 5대 권역별 특화발전전략과 중점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모든 지역이 조화롭고 특색있게 발전할 수 있는 탄실한 기반을 마련했고 31만 구민의 삶의 질도 향상됨으로써 호남에서 가장 살기 좋은 행복도시로 나날이 발전해 왔다.

이런 연구결과를 토대로 서구는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더욱 더 많은 정성을 쏟을 방침이다.

‘상대팀 선수에 욕설’ 서포터스 과열 응원 지나치다

지난 주 토요일 서울에 일이 있어 올라갔다가 아이들과 함께 프로농구 구경을 갔다. 개인적으로 응원하는 팀이 있기는 했지만 건전한 스포츠의 한마당이니 양팀이 다 잘 싸워 주기를 바랐다.

“연봉이 아깝다, 빠져라, 죽어라, 저주받으라” 등 야유가 쏟아졌다. 흑인 선수가 실수하면 “그러니까 NBA 못가고 여기까지 쫓겨왔지. 양키 고 홈”이라는 소리까지 나왔다.

無 等 鼓

세계 축구사에서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은 ‘파란’으로 기록됐다. 당시 서구 사회에 이념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북한의 등장 때문이었다.

포르투갈을 맞아 복합은 먼저 3골을 넣은 관중들을 열광시켰다. 비록 후반 포르투갈의 소나기골을 막지 못해 3-5로 무릎 꿇었지만 세계 축구계에 일으킨 충격은 대단했다.

북한 축구



그러나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였던 이탈리아전에서 북한은 마침내 세계 축구판을 뒤흔들었다.

시아축구대회 남북 선수들이 박승진·김봉환 등과 서로 어깨를 짚고 장대군단 이탈리아 수비를 뚫은 ‘사다리 전법’으로 천금같은 결승골을 터뜨려 1-0으로 승리, 8강에 진출하는 기적을 일궈냈다.

고속도로에 내걸린 슬로건 지방의 특색을 담자

얼마 전 전국 일주 가족여행을 다녀왔다. 고속도로를 달리다보니 곳곳에 광고·キャンペ인성 문구가 나붙어 있었다. 하지만 내용이 천편일률적이었다.

암목을 지날 때 교량 위에 ‘예향의 맛과 멋을 그대와 함께’라는 내용이였다.

▲정은지·광주시 북부 양산동

Table with publication information for Kwangju Ilbo, including contact details, subscription rates, and printing info.